

## I. 서론

진화이론은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 및 국토계획, 지리학, 조경학 분야에도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건축학에서는 인간거주학(Ekistics)<sup>1)</sup>을 다루고, 도시계획학에서는 동적도시(Dynapolis)<sup>2)</sup>나 소도읍이 거대도시(metropolis)<sup>3)</sup>로 성장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경관(landscape)해석에 있어 인간중심사고의 흔적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이란 명목하에 인간들의 다양한 활동이 지구상에 다채롭게 전개되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개발과 진화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상황에 의해 지구의 환경문제가 해체직전의 위기상태에 도달해 있음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경관 혹은 환경보전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은 그것을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자연과 인간사회와 같이 정적인 것도 고정된 것도 아니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며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관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형성되는 것으로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에 연속되는 모든 과정의 복합으로부터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Garret Eckbo, 1969).

- 1) 거주지 형태에 관한 서술 연구 및 거주지에 사는 주민과 물리적·사회문화적인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반적인 결론을 체계화한 이론을 총칭한다.
- 2) 그리스 도시계획가인 독시아디스(Doxiadis)가 주장한 미래도시의 개념으로 3차원의 공간에 대해서 4번째 차원인 시간에 초점을 두고 다이나믹하게 발전하는 미래도시를 Dynapolis라 명명했으며, 현대에 들어 도로를 따라 질서 있는 발전이 가능도록 조성된 기능도시를 일컫는다.
- 3)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가 많고 각종 기능이 밀집한 도시의 의미를 갖으며, 국내에서도 경제개발 이후 이촌향도 현상의 증가로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같은 곳이 인구가동의 중심점으로 기능한 상황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마이클 로리(Michael Laurie, 1983)는 경관은 그 자체의 특성이나 땅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역사적인 영향에 따라 변화하며, 동적,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체계의 반영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다분히 진화론적, 인간중심적 경관해석은 자연과 인간활동과의 유기적관계 속에서 인간을 위한 부지선정(site selection), 디자인, 건설과 설비, 관리와 유지 등을 정당화해왔고, 소위 개발이란 인간행위와 자연보전이란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변화(change)라는 진화개념으로 용인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경관의 가치 역시, 경관평가의 주체라 볼 수 있는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 예컨대, 경관을 자연 그 자체로 볼 수도 있고(Landscape as Nature), 인간의 서식처(Landscape as Habitat) 내지 인간의 무대(Landscape as Antifact)로 볼 수도 있다. 또는 경관체계(Landscape as System) 혹은 이념(Landscape as Ideology), 장소(Landscape as Place), 미(Landscape as Asthetics)로 파악할 수도 있다. 또는 불완전한 교정대상(Landscape as Problem)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재(Landscape as Wealth)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진화론적 경관해석의 종래입장을 대신할 기독교적 성경적 경관해석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경관해석의 기존의 이론을 정리 분석 비평해보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유관 성경구절에 근거하여 성경적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 II. ‘경관(landscape)’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관은 다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자마다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정의에 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관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경치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생존을 지원해 주는 생태적 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경관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본질을 느끼도록 하는 상징적, 철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임,2009)

경관은 일반적으로 ‘경치’를 뜻하거나 ‘특색이 있는 풍경형태를 가진 일정한 지역’을 뜻한다 (이 1963).

경관은 영어로 landscape인데 이는 landscape라는 고어에서 나온 말로 일정 지주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해 소유된 지역(district)을 뜻했다. landscape라는 단어는 16세기 말 또는 17세기 초부터 쓰였다고 하며 동시대 덴마크 풍경화가들은 landscape를 전원풍경(rural scenery)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경관의 보편적 형식은 이러한 서구 풍경화의 발전과 동반하여 진행되

었고 당대의 풍경화가 화폭에 담았던 상상속의 이상적 경치는 경관의 걸모습을 지배해온 규범이었다. landscape는 처음에는 바다경관이나 바다 그림에 대비되는 내륙의 자연풍경 또는 풍경화를 의미하였으나 현대에 들어 지구상의 모든 자연 및 도시풍경을 포함하는 포괄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경관을 보이는 풍경이라 정의할 때 ‘보인다’의 의미가 반드시 ‘시각’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보다 일반적 어휘인 ‘지각한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꽃향기, 폭포의 낙수 소리 등과 같이 인체의 오관을 통해 지각되는 풍경이라고 이해함이 더 적절할 것이다(임승빈, 2009).

또한 경관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힘에 의해 통제되는 상태가 아닌 ‘야생(Wild)’또는 ‘원시(Primitive)’경관과, ‘인공적(Artificial)’또는 문화적(Cultivated)’경관으로 구분되며, 같은 시대에 공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특징을 갖는다(황기원, 2011).

한편 경관의 대표적 표출방식인 정원을 볼 때 고대의 경우 대부분 권력이나 이상향과의 관계 속에서 조성되었다 하겠다. 이집트의 정원은 중지수집과 함께 감상을 위해 조성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의 정원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신들의 세계를 구현하였다. 이슬람과 중세의 정원은 경전에 묘사된 천국의 이미지를 정원에 투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 정원들은 신화를 직접 재현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 당시의 정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상을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조정송 외 2006). 이후 낙원과 연계된 이미지들이 구체적으로 풍경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풍경화 속의 자연을 모델로 삼아 개발된 풍경화식 정원은 픽처레스크 미학의 우산 속에서 18, 19세기를 풍미하였다. 그림 같은 자연의 이미지는 경관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경관을 구성하는 방식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배정환, 2004). 이후 프랑스의 기하학식 정원과 영국의 픽취레스크 양식 등이 대두되어 경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의 맥락은 도시화였고 이에 수반되어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공공영역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기능적 디자인과 생태적 방향 추구가 등장하였다.

근래에 들어 미니멀리즘, 해체주의, 대지예술 등의 장르가 경관을 대변한다 할 수 있으며 추후 어떤 다른형식이 나타날지 미지수이다. 결국, 경관이란 것은 역사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간형태로 인식되어오는 실정이다.

### III. 현대사회의 경관인식의 변천과정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화됨에 따라 경관도 이 범주에 들게 되었으며,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 가치추구가 종래 종교적, 사상적 가치추구를 대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사회의 민주화, 대중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종래 귀족중심(Landscape as Royal)에서 대중중심(Landscape as Public)으로 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경관평가방법에 있어서도 1960년대 이후 경관자원의 보존, 개발에 따른 시각적 영향의 최소화, 레크레이션 기회의 증대, 도시경관의 향상 등의 여러 측면과 관련하여 고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관은 훼손에 대한 보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아서(Arthur, et al,1977)등은 기존의 자연자원의 경관미 평가기법에 관한 포괄적 고찰을 함에 있어서 경관평가 방법을 목록작성(descriptive inventories), 대중 선호 모델(public preference model), 경제적 분석(economic aspects of aesthetic measurement)으로 나눈바 있다. 주비(Zuve, et al. 1982)등은 경관분석 및 경관지각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접근방법은 전문가적 판단에 의지하는 방법, 정신물리학적 방법, 인지적 방법,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4분화 하기도 했다.

대니엘과 바이닝(Daniel & Vining, 1983)은 경관의 질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에서 생태학적 접근, 형식미학적 접근, 정신물리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기호학적 접근, 다섯 가지 분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현대에 들어 경제학적 접근이나 기호학적 접근방법 등 경관분석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간중심의 가치가 경관해석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경관 분석의 틀을 다양한 범주로 분류하였지만 경관의 내용적 틀은 크게 보아 생태적 측면, 미적 측면, 철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대별된다 할 수 있다.

#### 1. 생태적 측면

경관분석에서 생태학적 접근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 생태학적 분석은 여러 학자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생태적 결정론을 주창한 이안 맥허그(Ian Mcharg)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안 맥허그의 생태 계획은 자연의 형성과정을 기상, 지질, 수문, 수질, 토양, 식생, 동물 등의 요소로 잘게 나누어 조사분석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을 중첩시켜 분석한 정보의

종합적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인간과 문화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천과 계곡의 경관가치를 상대적 척도로 계량화한 레오폴드(Leopold, 1969) 또한 생태학적 분석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 2. 미적 측면

경관의 물리적 형식이 미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형식미학적 분석이다. 자연경관에서 경관의 훼손 가능성을 연구한 리튼(Litton, 1974)이 형식미학적 분석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경관을 시각적 특성이 적은 평범한 경관, 높은 산이나 폭포 같은 독특한 지형을 지닌 지형경관, 중심이 둘러 쌓여 있는 위요경관, 점을 중심으로 뻗어 있는 초점경관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상 시각훼손 가능성이 높은 곳을 연구하였다. 제이콥스와 웨이(Jacobs and Way, 1968)는 ‘여러 형태의 경관이 토지이용 활동을 흡수 할 수 있는 정도’와 ‘토지이용이 시각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시각적 흡수성이 시각적 투과성과 시각적 복잡성의 함구로 나타난다 하였다.

미학의 상징적 측면을 기호차원으로 분석한 학자들도 있다. 기호적 차원에서는 건축물이나 도시를 대상으로 한 접근이 주를 이뤘으며 추후 경관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임, 2018). 기호의 다른 차원인 상징면으로 볼 때 중세의 수도원 정원구성은 유토피아를 상징하고자 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의 정원은 불교 및 신선사상에 관련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 3. 철학적 측면

철학적 측면의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방법(Phenomenological Approach)에서는 인간-환경이라는 전통적인 2분법을 지양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로 보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이 어우러진 상황의 여러 경험적 측면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성과 비장소성, 내부성과 외부성(Relph, 1979, p49), 장소애착과 장소혐오(Tuan, 1974, 1979), 거주와 여행 등과 같은 경험 차원에서의 새로운 2분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주환경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임승빈, 1988, p46).

또한 아이켄(Aiken, 1976), 렐프(Relph, 1976), 튜안(Tuan, 1979)등 지리학자 등이 문화적

경관특성에 주된 관심을 가지며, 경관의 내재된 의미, 가치등을 밝히고자 한 반면 현상적 입장에서는 경관의 의미, 가치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밝히는데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노베르슐츠(C. Norberg-schulz, 1980)는 현상적 접근을 표방한 그의 저서 “장소의 영혼(genius Loci)”에서 자연환경의 현상을 사물(Thing), 우주적질서(Cosmic Order), 특성(Character), 빛(Light), 시간(Time)의 5가지 요소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물과 질서는 공간적 요소라 하였고 특성과 빛은 일정한 장소의 전체적 분위기와 관련된 요소라 하였으며, 시간은 항구성 및 변화의 차원으로서 공간과 특성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노베르슐츠는 이상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낭만적경관(romantic landscape), 우주적경관(cosmoic landscape), 고전적경관(classical landscape), 복합적경관(complex landscape), 총 4가지 경관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낭만적 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로 터널 형태로 구성된 북유럽의 숲을 들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장소에서 다양한 자연에 대한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나무가 울창한 북유럽의 숲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고, 제한된 시야에 의한 미시적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연출되는 경관이 흡사 동화속에 나오는 ‘숲속의 난쟁이’를 만날 것 같은 느낌에서 인간을 꿈꾸는 듯한 혹은 공상적인 세계로 이끌어 준다는 의미에서 낭만적 경관이라고 부른다.

우주적 경관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사막을 언급하였으며, 광활한 불모지, 구름 없는 넓은 하늘로 설명하였다. 거시적인 규모의 경관을 경험하면 절대적인 질서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특히 사막에서는 낭만적 경관처럼 개별적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에 대한 힘을 경험하지는 못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절대적인 우주적 특성을 경험하며, 사막의 거주자에게는 ‘장소의 영혼’이 곧바로 ‘절대자’ 혹은 ‘유일신’을 뜻하게 된다.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및 이슬람교가 사막을 배경으로 탄생되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고전적 경관의 대표 경관으로 그리스의 경관을 사례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스의 경관은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며, 인간척도에 근거한 조화로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산, 구릉, 계곡, 분지 등의 자연요소가 각각의 개성을 지님과 동시에 연속적으로 변화를 갖으며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하늘은 높지만 친근하여 그리스인은 주어진 경관에서의 경험이 의인화된 신을 탄생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켰다. 그리스인은 자연에서 ‘난쟁이’나 ‘유일신’을 찾지 않고 인간 자신을 발견한다. 자신과 자연과 동등한 협력자로 여기며 자연을 친근한 보완관계로 해석한다.

복합적 경관은 앞서 언급된 낭만적, 우주적, 고전적 경관은 3가지의 기본적 경관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경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경관은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어서 사막과 비슷한 공간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토지가 비옥하여 ‘비옥한 사막’으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프랑스 경관은 우주적, 낭만적, 고전적 특성이 융합되어서 풍부한 의미를 지닌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알프스 경관은 툽날같은 윤곽과 협곡의 대비에 의하여 ‘야성적 낭만성(wild-romantic)’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임승빈, 1988).

표 1 노베르슐츠에 의한 경관유형 및 특징

구분	특징	비교 사례지
낭만적 경관(romantic landscape)	제한적 시야, 몽환감	북유럽 수림경관
우주적 경관(cosmoic landscape)	개방적 시야, 절대감	사막 지형경관
고전적 경관(classical landscape)	조화적 시야, 친근함	그리스 지형경관
복합적 경관(complex landscape)	낭만적·우주적·고전적 경관이 복합적으로 연출	프랑스 지형경관 알프스 지형경관

최근의 현상학적 경관분석에서는 전문가의 경험적이고(lawrence, 1987) 개방적 인터뷰(pannartz, 1986) 분류법(sorting) 및 다차원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기법(sixsmith, 1986)과 같은 것이 가정(Home)의 여러 측면을 다양하게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인간을 자연의 산물로 보며 디자인을 인간보다 더 중요시하며 디자인의 목적을 인간의 재창조에 두며 자연 없는 인간이나 인간 없는 자연을 無로 파악한 가렛트 에크보(Garrett eckbo, 1969, p.54)와 같은 근대 서구 조경가와 고대 동양인들의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았던 자연철학과 깊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한편 풍수지리설은 중국에서 시도되어 한국에서 특히 발달한 사상체계로, 경관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현상학적 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수지리설은 토지나 경관을 이해하는 이론체계이며 동시에 이용을 위한 기술이기도 하다.

풍수지리에서는 산, 물 방위 및 사람이 주요 고려 대상이며 땅을 드러다 보는 방법으로는

4) 도교의 자연철학은“...원래 자연의 본질적인 통일감은 개인의 양심을 상실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는 한 생활 방식이다. 그것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행동, 그리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자연과 접촉하는 공예기술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상식의 근원에 대한 재고찰을 필요로 한다...”도교의 자연주의 사상은 보통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모든 예술과 기교, 즉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연발생적 행위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시와 풍경화에 훌륭하게 표현된 인간감정의 노출이고, 그것의 기법에는 ‘통제된 우연’, 즉 강제력과 자의식적인 의도 없이도 정확하게 읊을 것을 실행하는 매혹적인 수련이 담겨 있다.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론, 형국론 등의 원리를 이용한다. 특히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니 쌍룡교구형(雙龍交媾形)니 하는 지형의 외관을 중심으로 지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형국론은 미학적 측면과도 연결된다.

#### 4. 경제적 측면

경관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경제의 편익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게임이다.

편익계산은 경관 또는 레크리에이션의 편익(benefit)을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경관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편익을 계산하는 경우 경관이용자들이 경관의 이용과 관련되어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불용이성, 기회비용, 지출비용, 국민총생산, 부동산 가격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교환게임은 경관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가치 즉 수자원, 지하자원, 대기자원, 주거의 편리성, 교육의 질 등과의 상대적 중요성 또는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교환게임을 통해 제안된 상황아래에서 여러 인자간의 상대적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계획과정의 목표설정 단계에서 삶의 질의 지표를 찾아내고 예산을 분배하며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임, 2018).

#### IV. 경관계획 단계별 특성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경관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상 부분계획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법 제정 이후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조례 작성,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관계획은 기존 경관자원의 보전과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형성의 두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경관보전은 경관지구의 지정과 그에 따르는 법과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경관 관리를 통해 실현되며 경관형성은 주로 경관 사업과 경관협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경관계획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 경관계획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기본경관계획이란 경관계획

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특정경관계획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역사문화, 시가지 등) 혹은 특정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 시설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안이다.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한국경관협의회, 2008).

조경분야에서는 경관계획의 과정을 크게 조사·평가와 구상·계획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이명우, 2011), 다시 조사·평가 단계에서는 사전검토와 환경분석, 구상·계획 단계에서는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전검토단계는 대규모의 광역적 개발계획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조사·평가하는 단계로 사전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사업예비타당성 검토를 내용으로 한다. 과거 일반적인 조경분야의 경관계획 파트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최근 광역단위의 개발과 관광지 조성 등에 있어 살펴봐야 할 주요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분석단계는 개발대상지 내·외부에 위치한 생태서식지를 포함한 자연환경, 인간의 행태 분석을 포함한 인문환경,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용자들의 시각환경분석에서 나타나는 잠재력과 제한요소 등을 토대로 종합분석을 다루게 된다. 이 단계에서 도출되는 경관계획의 논리성과 객관성의 수준은 대상지 개발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조경 및 경관계획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단계이다.

기본구상단계는 앞의 조사·평가 단계에서 분석된 합리적인 자료는 개발하고자 하는 대지에 도입되는 인원과 건물·시설물 등의 양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추정 가능한 프로그래밍 단계를 거쳐서 도출된 최적의 기본구상안은 환경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이 받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기본구상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 위에 인간이 사용할 세부공간, 시설, 동선, 도로 및 주차장 등이 계획되며, 이때에 결정되는 전통생태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저영향개발기법은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가 가능한 경관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조경분야 경관계획의 단계별 과정

## V. 기독교 세계관적 경관해석

과연, 경관(landscape)이란 인간 의지대로 맘껏 디자인하고 개발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속성이며 인간 역시 자연의 산물에 불과한 것인가? 전황에서 논한 기존의 경관해석의 주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대립된 개념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관성 속에서 경관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개발해나가는 큰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과 자연의 어떤 운명론적인 사며니즘이나 애니미즘과 같은 종교적 주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관의 형태(Geomorphology)에 관한 인식 및 경관 가치에 대한 인간적 견해를 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르네상스 이후 서구조경가나 건축, 지리, 도시계획가 사이에 주로 연구된 경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공간 계획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개발방향이 다분히 진화론적 기본가설(Basic-presupposition)에 근거를 두고 학적체계를 수립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며, 인간의 개발활동과 아울러 사회체제가 갈수록 다양화되며, 기존경관 역시 공간분화 내지 파괴되어감으로 해서 진화론처럼 경관이 진화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경관해석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물리적 공간계획가들에 의해 오히려 지구경관은 더욱 황폐화되어 갈 우려가 있으며 인간역시 파멸 할 위기에 와 있다고 단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성경적 틀은 무엇인가? 첫째로, 경관은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창1/1) 창조주에 의해 소멸 될 수도 있으며(벧 II3/12) 물리적 작용(weathering process)이나 생물학적 작용이나 인간활동에 의해 변화 될 수는 있지만 변화 자체를 진보내지 진화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행위나 소돔성이거나, 고모라성 등 도시화나 상업주의, 자본주의 등의 발달로 인한 부패를 죄악시 여기고 있다(계 18/1-24, 창13/10-13, 창19/13). 둘째, 경관해석의 관점을 인간의 관점에 둘 때 인간중심의

가치가 결국 경관의 가치를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관 고유의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며 과학언어게임보다 경제적 가치가 경관가치평가에 기준이 될 위험이 있다. 동시에 자주 변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가치에 기준을 두고 자연을 격리할 경우 변화속도가 느린 경관의 회복에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위험부담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창1/4, 10, 12, 18, 21, 25, 31)경관 그 자체에서 가치를 논하는 것이 보편타당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우주만물,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의 원초적 경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면 그 속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속성 그 자체가 아닐까? 따라서 경관평가대상 속에 인간 자신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과 우주의 질서에 순응내지 조화되는 인간의 제반 활동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연은 인간활동과 조화될 때 심히 아름다운 것이며 인간의 가치와 별도로 자연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유가치가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로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가 있기 전에 피조된 우주만물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눅 9/25, 마16/26) 말씀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눅 12/7) 말씀이나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것이 다 너희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고 3/21-23) 말씀 등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자체의 가치보다 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현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존재하며 벌레요 구더기 형성의 현재 인간의 모습이 부활하여 영광스런 형체(고 15/42,44)로 변화될 인간의 가치는 분명 현상의 피조만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새 피조물의 실체로서(고 II5/17-18) 영생을 얻은 그리스찬의 가치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가치인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살만한(고 6/20) 귀한 가치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줄 수 있었으며(요 3/16) 하늘에서는 한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며(눅 15/7) 전도자의 발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발길(롬 10/15)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담의 독처하는 것(창 11/1-9) 입을 볼 때 자연경관 자체는 선한 것이나 인간중심의 경관의 지나친 개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않아 인간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울배반 같기도 하지만 남녀가 결혼하여 종족을 번성시키며 자연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 자체가 축복이지만(창 2/18) 하나님의 법도를 빗나간 자연의 이용,

예컨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일이나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간중심의 도시나 문화를 이룩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경관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지금까지의 경관의 해석은 다분히 인간중심의 진화론적 기본 가설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하여져 왔으나 본고에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중심의 경관해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경관이란 그 자체가 피조된 우주 만물로서 실체인 것이며, 인간 역시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주만물보다 더 가치있는 존재로서 파악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 역시 산영, 산존재(창 3/20, 고 16/45)로의 육체를 가진 인간과 살려주는 영 거듭난 존재로서의 인간(고 16/25)의 가치가 다름을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구 철학자들이 논한 인간대자연 몸과 마음, 하늘과 땅,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등 이원론적 철학적 토대에 경관 자체를 평가하는 극단적 논리는 비성경적이라 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주만물 또한, 현상의 세계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되어 있는 내세에 대한 모형으로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의 기본 가설하에 현상의 우주 경관이 계속 진보발전 하리라고 보는 종래의 경관 해석만으로 인간중심적 경관 평가를 하는 것 역시 비성경적이라고 본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현상학적 경관해석이나 노장사상 등 동양에서 그동안 파악한 인간과 자연의 상호연관성속에서 경관의 실체를 파악해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간의 심리적 내면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인간소우주를 논한 관점이나 인간의 삶을 위해 그의 환경을 조성할 때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인간존재구조와 우주구조를 관련시켜 그의 환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던 일면에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객관적 실체의 가치를 간과할 우려가 있으며 인간의 세계에 대한 산존재(a living soul)로서의 인간의 현상학적 해석 이상을 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살려주는 영(a quickening spirit)으로서 인간이 우주와 자연을 파악하고 현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활한 인간의 가치와 천상세계의 모형으로서 현상세계의 경관의 제 가치를 논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모형과 땅의 모형이 일치함을 원하고 있으며(눅 11/2)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종래 진화론적 인본주의적 틀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구와 자연 그리고 지구와 우주 경관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눈은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극히 영적인 것이기에(눅 10/21-22)

거듭남의 지속적인 역사와 더불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경관해석의 기본적 틀을 계속 연구 보완해야 하며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인간이 만물 자연 파괴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교회가 주체가 되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엡 1/23)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sup>5)</sup>.

## 참 고 문 헌

- 1)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2001, 동국대학교출판부
- 2) 김농오, 경관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천과 조경가의 활동, 목포대 조경학회
- 3) 김대식, 환경문제와 그리스도교 영성, 2008, 프리칭 아카데미
- 4) 김문화, 미학의 이해, 1989, 문예출판사
- 5) 김영중·윤은수·하성만, 기독교로 세상바라보기, 2015, 한들출판사
- 6) 김종태, 동양화론, 1987, 일지사
- 7) 배정환,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2004, pp. 45-84
- 8) 백기수, 미학, 서울대출판부, 1979, p.174
- 9) 신기화, 조경계획과 설계의 실제, 1997, 대우출판사
- 10) 신익순, 조경기본법제정과 관련법규의 정비 방향, 2000, 한국조경학회지 29(5): 37-47
- 11) 임승빈, 경관분석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 조경학회 31, 1988, 7, pp.43-51.
- 12) 임승빈,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pp.27-265
- 13) 임승빈·주신하, 조경계획, 2006, 보문당
- 14)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성경, 2005
- 15) 조정송 외, 조경·미학·디자인, 도서출판 조경, 2006. pp. 22-95
- 16) 최기수, 현대경관의미에서 조명해 본 한국의 전통경관, 1989, 한국조경학회 31(10): 57-68
- 17) 황기원, 경관의 해석 그 아름다움의 앞,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141-142
- 18) 한국경관협의회, 경관법과 경관계획, 보문당, 2008, pp. 45-48
- 19) Ellul, J.,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1992, 대장간출판사
- 20) Garrett. Eckbo, Landscape we see, 1964, pp3-104
- 21) Michael Laurie(저)·최기수(역), 조경학개론, 1983, 신학사
- 22) White, L.,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1967, Science, Vol. 155, No. 3767: 1203-1207.
- 23) 中村良夫(저)·김재호(역), 풍경입문학, 2008, 도서출판 문중

---

5) 우주란 자의면에서 볼 때 [ ]은 가옥의 상개를 표시하며, 이에 존재의 장소를 표시하는 「우」를 결합해서 공간적 세계를 의미하게 되고, 또한 모든 동작의 내력을 표시하는 「유」를 결합해서 시간적 세계를 의미한다.

## 〈 국문초록 〉

경관해석에 있어 현상학적 접근이나 노장사상은 과거 동양에서 주로 인식해온 인간소우주적 개념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실체로 파악해온 종래의 기계론적 경관해석보다도 훨씬 인간중심적인 경관해석이라 볼 수 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해온 종래의 이원론적 철학보다는 훨씬 성경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인간중심적 경관해석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인간 창조 이전에도 보기에 좋았던 자연경관 자체의 경관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영, 靈]로서 인간이 인식할 수 없거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경관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경적 경관해석의 기본적 틀에 있어 '살리는 영'으로서 인간의 관점에서 만물의 실체와 천상천국의 모형으로서 지상세계에 대한 가치를 논함을 주장하였다.

## 〈 Abstract 〉

**Kim, Nong Oh** (prof. Mokpo National University)

Phenomenological approaches and old-age ideas in landscape analysis are human microcosm concepts that have been widely recognized in the East in the past. This is a much more human-centered landscape analysis than the traditional mechanistic landscape analysis, which has identified humans and nature as separate entities. At the same time, it is much more like a biblical interpretation than the conventional dualistic philosophy of separating nature from God. However, it is easy to overlook the value of the natural landscape itself, which was good to see even before human creation, when it came to excessive human-centered landscape analysis. It was pointed out that these living creatures [Soul, 靈] could commit the error of landscape analysis in the recognition process that humans cannot recognize or can recognize mistakes. Therefore, this paper argued that the basic framework of biblical landscape analysis discussed the value of the earth world as a model of heaven and the reality of all things from the human point of view as a 'Saving Soul'.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경관해석의 성경적 틀	발표자	김농오
		논찬자 (소속)	이 창 훈 (목포대학교)

린 화이트(Lynn White)를 비롯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환경론자들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월터스토폴프는 현대를 가르켜 “눈부신 승리로 가득찬 세기다.”라고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다양한 기회가 많아진 반면, 인간의 자연정복으로 인해 삭막한 환경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도 함께 수용하고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관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종교관적 관점에서 태초로부터 만들어진 원시상태의 경관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배우고 분석하기 이전에 경관을 조작하는 기법부터 다루며 환경변화와 개발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자연을 피조물로보는 서양에서 시작된 인간 중심주의와는 다르게 자연을 경외시하는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윤리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 이것이 바로 생태 중심주의이다.

경관은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이 개입할 때 비로소 존재하며, 경관의 특성상 인간이 체험하는 경관, 인간이 조작하는 경관, 인간과 무관한 경관의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관은 다의적인 성격을 지니며 경치, 토지, 장소, 환경, 조경 등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각 경관마다 형성에 작용하는 인간의 간섭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환경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투영시켜주는 삶의 일부라 볼 수 있다.

경관의 대상은 무생물과 생물의 복합체로 생태계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에 생태중심주의 개념으로 세상을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관점을 정립해야한다. 즉 자연이라는 원시상태의 대상을 경관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관점으로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경관을 제대로 직시하는 안목의 성찰이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